

수도권 축산물 공급, 우리 손에 있소이다

⑥ 서울지원 편

고객홍보팀



서울지원 사무실 앞 소통의 복도



정확한 판정을 위해! 날아라 '판정보드'

아예 길목을 막고선 전문 방호요원이 방문객을 따로 맞아주는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접근성 좋은 이곳에 서울지원 사무실이 있다.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지원장실은 2층, 사무실은 3층에 따로 위치해 있다.

서울지원은 사무실 앞 복도에 게시판을 설치해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들을 나누는가 하면 잡지대를 두고 홍보물을 깔끔히 배치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마치 터미널 티켓 판매소처럼 복도 쪽으로 작은 창을 내 누구나 쉽게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 없는 구조 때문인지 취재를 위해 지원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이제까지 방문했던 지원들 중 최다의 방문객이 설 틈 없이 지원을 찾아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업무현장에서도 아이디어와 적극성은 빛났다.

익숙지 않은 구조에 그저 서울지원 근무 직원의 뒤를 쫓다보니 좁은 돼지작업 공간을 지나 탁 트인 냉장고에 들어서게 됐다. 높이 걸린 도체, 이동레일 자체가 높다는 것도 탁 트인 느낌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렇다보니 판정이 쉽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물으니 소도체를 살피던 박승필 과장이 독특한 발판을 소개했다. 발판이야 다른 지원에도 있지만 서울지원 것은 썰매처럼 생겼다는 게 특징이다. 그 위에 올라서 마치 보드를 타듯 허리힘을 발휘! 옆으로 튕기듯 이동하며 판정한다. 박 과장은 멋지게 방향도 틀어보였지만 익숙지 않아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축산물 최대소비시장!

여기까지는 겉보기. 중요한 속을 들여다보려면, 최대 축산물 소비시장인 수도권 지역을 잡고 있음을 잡고 넘어가야 한다.

이날 오후 서울지원의 직원들이 환영 받지 못할 고객홍보팀의 카메라까지 달고 나선 마장축산물시장은 단일 육류시장으로는 세계에서 손꼽는 큰 규모다. 수도권 축산물 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력제 시행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한창 진행 중인 2015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에 있어서도 서울지원에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곳이다. 기본적인 판정이나 이력제 관련 업무에 귀포 회수, 본원 회의까지 있어 지원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에도 2명이 함께 마장동을 찾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은 식육포장처리업체 4곳, 식육판매업체 3곳, 수입육 판매 업체 1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유통실태조사를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곳도 아직 많다보니 업체 중에서는 흑여 통계자료 외의 목적으로 쓰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경계의 벽을 먼저 세우는 곳이 있다고 했다.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무작정 찾아가 협조요청을 하면 일단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기에 이날은 평소 거래하는 큰 곳들 위주로 조사를 먼저 시작했다.

양계부문 조사를 하던 한 평가사는 조사를 위해 여러 번 찾아가 부탁하며 매번 답을 사다보니 계획치 않은 몸보신을 잘 했다더라. 이 얘기를 먼저 듣고 걱정을 했는데, 이날의 조사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미리 다 섭외를 해냈고 판매장 일부는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조를 받기도 했던 덕이다.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유통실태조사 중인 서울지원 직원들

유통실태 조사 뿐 아니라 축산물 최대소비시장을 끼고 있다는 업무환경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CS 전문가로 트레이닝 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지원은 수도권이라 기본적으로 소비시장이 크다 보니 민원 전화를 받다보면 농가는 100건 중 1~2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 관련 이슈가 많이 생성된다. 그만큼 돈으로 직결되는 것이 많아 관심도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원은 판정 중 하자가 있을 경우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두고 사유를 기록하여 문의가 올 경우를 대비한다. 워낙에 다양한 민원사례들을 처리하게 되다보니 쌓인 노하우도 많아 타지원에서 대학과의 협업은 어찌했는지, 유사 사례의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 서울지원에 선례를 묻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민원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익숙하다고.

기술로, 판정물량으로. 약진하는 서울지원

그렇다면 서울지원은 과연 소비시장만 강한, 본연의 업무인 등급판정이나 이력제 업무는 미미한 곳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우선 최근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7월 31일 700만에 약간 못 미치는 누적 등급판정 수수로 3위와 큰 간격을 둔 2위에 올라있는



계란 핫라인~ 농장에서 바로 '퀵'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닭.닭.닭.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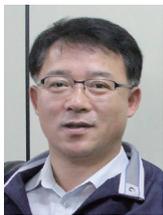
마니커동두천지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계란 생산업체 중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가농바이오가 서울지원에 있다. 산란 6개동과 육성사 2개동, 총 8개동의 농장이 계란 작업장과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농장에서 계란이 바로 들어오는 온라인(on-line) 시스템으로 지평선에 닿을 듯 쪽 이어지는 계란의 물결이 시간당 최대 18만개의 처리력을 갖춘 최첨단 기기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그렇다보니 견학하러 오는 이들도 많은데, 평가사

사무실은 견학 필수 코스가 된지 오래라고 한다.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의 개설 이후 현재 축산물 유통의 중심은 충북 쪽으로 이동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과 함께 하는 서울지원의 상징성은 축수엄금! 불변의 자리에 있음을 서울지원을 취재하며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 탄탄한 입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직원들의 능력이 작업장 시설보다 더 빛나는 지원, 그곳이 바로 서울지원이 아닐까 한다. **동경경보**^{35T}



이원복 지원장이 이야기하는 우리지원, 그리고 2015년



“수도권이라 막연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털어놓자면 우리지원은 근무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 강원도 철원이 포함돼 있을 만큼 관할 지역이 넓다. 그래서 특히 직원 간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다. 넓게 흩어져 있더라도 업무 내용을 주로 공유하는 '카톡'과 일상 얘기들을 격의 없이 나누는 '밴드'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거기서 오는 친밀감이 크다.

물론, 체계성도 중요하다. 말만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은 탈피해야 한다. 지원도 지원 나름대로의 체계가 필요하다. 업무가 많다보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럴수록 업무에 대한 고도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의 업무를 하더라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단순히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분석해내며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2015년 무엇보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실'이다. 물론 똑똑한 직원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똑똑보다 성실이 더 중요하다. 요즘 세상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자면 늦는다. 미리 꼼꼼히 챙기고 꾸준히 관리하며 더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